

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(2021년 4분기)

2022. 2.

※ 「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(2021년 4분기)」은 한국경영자총협회 (회장 손경식)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

◀ 목 차 ▶

요 약

1. 최근 고용 동향 / 1
2.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/ 2
 - 가. 청년층 고용회복 지체 / 2
 - 나. 공공·준공공 부문에 집중된 고용회복 / 4
 - 다. 지역별 고용회복세 차별화 / 7
3. 결론 및 시사점 / 8

< 요약 >

1. 최근 고용 동향

- ▶ 2021년 4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~3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 시현.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 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

2.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

가. 청년층 고용회복 지체

- ▶ 최근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,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(2019년 4분기) 수준은 미회복.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했지만,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'쉬었음', '취업준비'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보다 각각 15.2%, 8.6% 증가

※ 주요 활동상태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(만명, 통계청)

[쉬었음] 35.5('19.4q) → 40.9('21.4q) < 15.2% 증가 >

[취업준비] 50.2('19.4q) → 54.5('21.4q) < 8.6% 증가 >

나. 공공·준공공 부문에 집중된 고용회복

- ▶ 경기순환기(제11순환) 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·준공공 부문(공공행정, 보건·복지업)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. 이로 인해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뎠을 전망

※ 경기순환기 상 코로나19 위기 전후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폭(만명)

[도소매] -46.5 [숙박음식] -22.5 [제조] -19.4 [공공행정] +5.4 [보건복지] +66.0

- ▶ 경기정점과 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[①정점('17.3q) → 저점('20.2q), ②저점('20.2q) → 정점('21.4q)]를 합하여 고용 증감폭 계산

다. 지역별 고용회복세 차별화

- ▶ 최근 취업자가 늘고 있으나, 고용회복세에 지역별 편차 존재. 경기도와 세종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, 울산시와 경북은 약한 회복세 시현

※ 경기도는 반도체업 호황,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입지 영향으로 고용회복세가 강하고, 울산시는 조선업 구조조정, 경북은 자동차부품업 불황으로 고용회복세가 약한 것으로 추정

3. 결론 및 시사점

- ▶ 2021년 4분기 고용 흐름은 청년층 만성적 비취업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하며 청년층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, 최근 경기순환기 상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·준공공 부문에 흡수되어 향후 고용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. 고용회복세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며 지역별 고용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.
 - ▶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성적 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,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.
 - ⇒ (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) 빅데이터 기반의 취업 정보 플랫폼 구축, 청년 전담 고용지원 센터 및 전담 서비스 확충으로 비취업 청년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
 - ⇒ (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하는 노동개혁 추진)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산업에 맞는 고용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근본적 개편 필요. 이에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력양성, 기업지원 정책 정비 필요
 - ⇒ (지역별 맞춤형 고용대책 수립) 지역별 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 필요. 이와 함께 지역별 직업훈련체계 정비,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역 고용 창출 지원 강화
- ※ 현재 수도권 중심인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지방 거점 도시(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울산 등)로 확산해 지역 청년들의 오프라인 훈련 기회 확대, 교육 훈련의 지역 격차 해소 도모

1 최근 고용 동향

① **(고용지표 회복세 지속)** 2021년 4분기 고용지표는 지난 2~3분기에 이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

- 취업자가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, 실업자와 실업률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창출력 개선

※ '21년 4분기 취업자 증가폭(66.0만명)은 '14년 1분기(79.7만명) 이후 최대

※ '21년 4분기 실업자 감소폭(-21.0만명)은 '02년 1분기(-23.5만명) 이후 최대

< 표 1. 최근 취업자·실업자·실업률 증감(전년동기비) 추이 >

구분	2020.4q	2021.1q	2021.2q	2021.3q	2021.4q
취업자	-44.1만명	-38.0만명	61.8만명	57.7만명	66.0만명
실업자	15.3만명	21.8만명	-9.7만명	-19.4만명	-21.0만명
실업률	0.6%p	0.8%p	-0.5%p	-0.8%p	-0.8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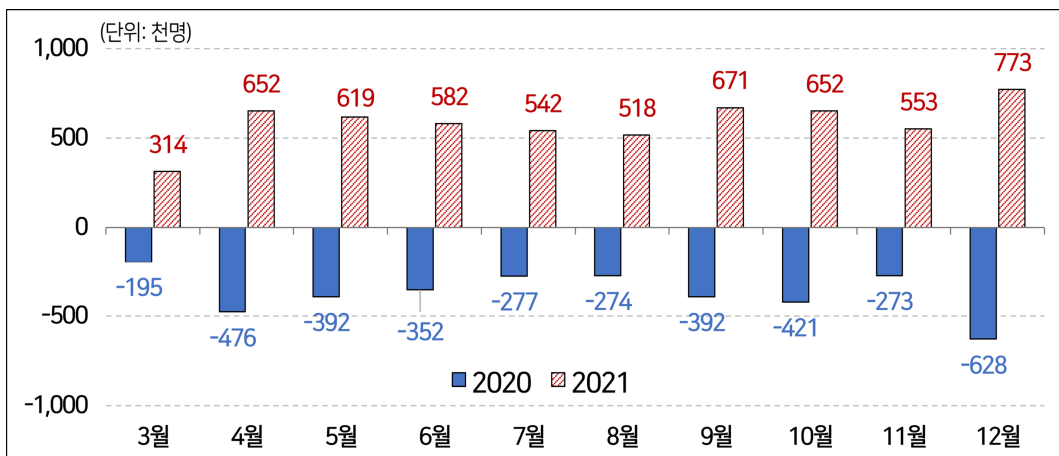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② **(기저효과에 유의)** 다만 최근 고용지표 회복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*에 기인하고 있음에 유의

* 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현상

▶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된 '20년과 비교하면, '21년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커지는 착시현상 발생

< 그림 1. 최근 월별 고용증감(전년동월비) 비교(2020년 vs 2021년) >

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

가 청년층 고용회복 지체

① (코로나19 이전 청년층 취업자 규모 미회복)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 수는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, 아직 코로나19 이전(2019년 4분기)의 청년층 취업자 규모를 회복하지는 못함.

-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1년 4분기 392.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398.2만명의 98.5%에 그침.

< 표 2. 최근 청년층 취업자 추이(단위: 만명) >

구분	2019년	2020년				2021년			
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취업자 수	398.2 (100.0%)	382.8	372.4	378.2	371.7	372.5	390.0	396.3	392.2 (98.5%)
증감 (전년동기비)	7.4	-7.1	-19.9	-19.5	-26.5	-10.3	17.6	18.2	20.5

주: ()안은 '19년 4분기 대비 고용 수준
 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② (청년층 만성적 非취업자 규모 증가) 코로나19 시기 늘어나던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*가 2021년 1분기 이후 감소로 전환. 그러나 활동상태별로 청년층의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'쉬었음', '취업준비'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(2019년 4분기)보다 증가

*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.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할 의사가 없이 쉬고 있는 사람들로 전업주부, 연로자, 취업준비생, 진학 준비자, 구직 단념자 등이 대표적

※ 청년층(15~29세)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(만명, 전년동기비, 통계청)
 : 10.1('20.2q)→ 1.7(3q)→ 6.7(4q)→ -7.1('21.1q)→ -29.6(2q)→ -21.9(3q)→ -25.9(4q)

-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4분기 454.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(473.4만명)보다 19.2만명 감소

- 활동상태별로는 '육아·가사', '교육기관·학원 통학'은 감소했으나, '쉬었음*', '취업준비'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각각 5.4만명, 4.3만명 증가

* 육아,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

< 표 3.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>

구분	2019년 4분기(A)	2021년 4분기(B)	증감(B-A)
비경제활동인구	473.4만명	454.2만명	-19.2만명
쉬었음	35.5만명	40.9만명	5.4만명
취업준비 ¹⁾	50.2만명	54.5만명	4.3만명
육아·가사	20.3만명	14.8만명	-5.5만명
교육기관·학원 통학	345.2만명	323.1만명	-22.1만명
그 외 ²⁾	22.3만명	20.7만명	-1.6만명

주: 1. 비경제활동 사유 중 「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통학」, 「취업준비」를 합한 수치(통계청)

2. 비경제활동 사유 중 「진학준비」, 「연로」, 「심신장애」, 「군입대 대기」, 「기타」를 합한 수치

3.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(통계청).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

나 공공·준공공 부문에 집중된 고용회복

① (코로나19 고용 충격 흡수 분야: 공공·준공공 부문)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부문*보다는 공공·준공공 부문(공공행정, 보건·복지업)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

* 표준산업분류 상 21개 대분류 중 「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O)」과 「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Q)」을 제외한 19개 대분류 산업

-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

※ 코로나19 위기 전후 고용 감소폭(만명): [도·소매업] -46.5, [숙박·음식업] -22.5

-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최근 공공행정 및 보건·복지업 등 공공·준공공 부문에서 고용이 대폭 증가

※ 코로나19 위기 전후 고용 증가폭(만명): [공공행정] +5.4, [보건·복지업] +66.0

⇒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은 공공·준공공 부문으로 흡수됨을 반영하는 수치

< 표 4. 최근 경기순환기에서 주요 부문별 고용 창출 폭 증감 비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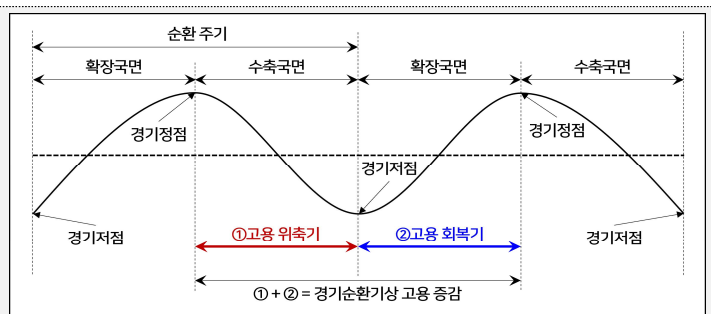
구분	경기정점('17.3q) → 경기저점('20.2q)	경기저점('20.2q) → 경기정점('21.4q)	고용 창출 폭 증감(A+B)
	고용 위축기(A)	고용 회복기(B)	
민간부문	-51.3만명	41.5만명	-9.8만명
공공·준공공 부문	36.5만명	34.9만명	71.4만명
전산업	-14.9만명	76.2만명	61.3만명

주: 1. 통계청의 공식적 경기순환주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코로나19 위기 시 경기침체기는 '17년 3분기부터 '20년 2분기까지로, 경기회복기는 '20년 2분기부터 최근('21년 4분기)까지로 간주
2. 고용 창출 폭 증감은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를 합하여 도출
3.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(통계청).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※ 경기순환기 상 고용 증감

▶ 경기정점과 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 [①정점→저점, ②저점→정점]를 합해 고용 증감폭 계산



② (민간부문에서도 코로나19 고용 충격 일부 흡수) 코로나19 위기의 경기순환기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크게 축소된 업종은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업, 제조업. 다만 운수·창고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, 정보통신업은 코로나19 위기의 경기순환기에서도 고용이 증가

- 운수·창고업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이 늘어난 것은 비대면 산업의 발전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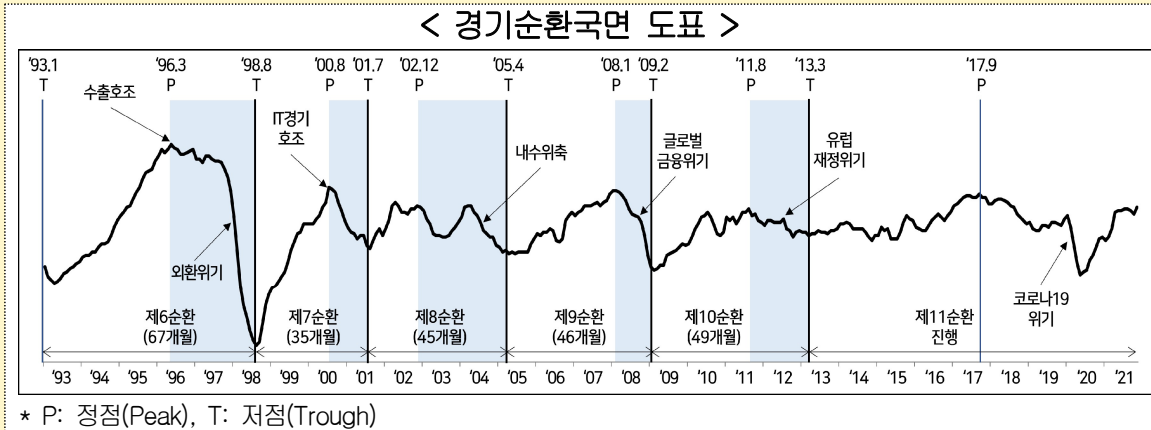
< 표 5. 최근 경기순환기에서 주요 업종별 고용 창출 폭 증감 비교 >

구분		경기정점('17.3q)	경기저점('20.2q)	고용 창출 폭 증감(A+B)	
		→ 경기저점('20.2q) 고용 위축기(A)	→ 경기정점('21.4q) 고용 회복기(B)		
민간	주요업종	도·소매업	-28.3만명	-18.2만명	-46.5만명
		숙박·음식업	-18.8만명	-3.7만명	-22.5만명
		제조업	-20.1만명	0.7만명	-19.4만명
		운수·창고업	6.9만명	17.6만명	24.5만명
		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	7.2만명	11.3만명	18.5만명
		정보통신업	7.6만명	7.7만명	15.3만명
	소계	-51.3만명	41.5만명	-9.8만명	
공공·준공공	공공행정	-1.0만명	6.4만명	5.4만명	
	보건·복지업	37.5만명	28.5만명	66.0만명	
	소계	36.5만명	34.9만명	71.4만명	
전산업 계		-14.9만명	76.2만명	61.3만명	

- 주: 1. 통계청의 공식적 경기순환주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코로나19 위기 시 경기침체기는 '17년 3분기부터 '20년 2분기까지로, 경기회복기는 '20년 2분기부터 최근('21년 4분기)까지로 간주
2. 민간부문 소계는 표준산업분류 상 21개 대분류 중 「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(O)」과 「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(Q)」을 제외한 19개 대분류 산업의 고용 증감을 합한 수치
3. 고용 창출 폭 증감은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를 합하여 도출
4.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(통계청).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참고. 경기순환기를 고려한 경제위기별 고용 동향 분석



- ① **(외환위기)** 당시의 경기순환기(6순환 수축기→7순환 확장기)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크게 축소된 업종은 제조업(-42.9만명)과 건설업(-19.3만명)이고, 크게 확대된 업종은 숙박·음식업(+21.9만명)과 도소매업(+15.8만명)
 ⇒ 이는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**자영업 부문으로 흡수된**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

< 외환위기 당시 경기순환기에서 주요 업종별 고용 창출 폭 증감(단위: 만명) >

구분		제조	건설	도소매	숙박음식	금융보험	공공행정	보건복지
경기정점('96.3q)	A	-94.2	-31.0	-8.3	1.8	2.7	10.9	6.8
→ 경기저점('98.3q)								
경기저점('98.3q)	B	51.3	11.7	24.1	20.1	-3.0	-2.2	6.2
→ 경기정점('00.3q)								
고용 창출 폭 증감(A+B)		-42.9	-19.3	15.8	21.9	-0.3	8.7	13.0

주: 고용 창출 폭 증감은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를 합하여 도출
 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- ② **(글로벌 금융위기)** 당시의 경기순환기(9순환 수축기→10순환 확장기)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크게 축소된 업종은 숙박·음식업(-16.4만명)이고, 크게 확대된 업종은 보건·복지업(+55.5만명), 공공행정(+17.3만명)
 ⇒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**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어 공공부문으로 흡수된**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

<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순환기에서 주요 업종별 고용 창출 폭 증감(단위: 만명) >

구분		제조	건설	도소매	숙박음식	금융보험	공공행정	보건복지
경기정점('08.1q)	A	-16.9	-4.6	-6.0	-4.6	-3.7	3.3	13.5
→ 경기저점('09.2q)								
경기저점('09.2q)	B	21.9	5.8	4.4	-11.8	7.9	14.0	42.0
→ 경기정점('11.3q)								
고용 창출 폭 증감(A+B)		5.0	1.2	-1.6	-16.4	4.2	17.3	55.5

주: 고용 창출 폭 증감은 경기정점과 경기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를 합하여 도출
 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다 지역별 고용회복세 차별화

① (고용회복세가 강한 지역: 경기, 세종, 전북) 코로나19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기, 세종, 전북은 강한 고용회복세 시현

- 경기, 세종, 전북은 2021년 고용 증가율이 전국 평균(1.4%)을 상회했고, 2021년 4분기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(2019년 4분기) 수준을 넘어섬.

※ 경기도는 반도체업 호황,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입지, 전북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(군산형 일자리) 추진의 영향으로 고용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추정

② (고용회복세가 약한 지역: 울산, 경북, 광주)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울산, 경북, 광주는 약한 고용회복세 시현

- 울산, 경북, 광주는 2021년 고용 증가율이 (-)를 기록했고, 2021년 4분기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함.

※ 울산시는 조선업 구조조정, 경북은 자동차부품업 불황, 광주시는 자동차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고용회복세가 약한 것으로 추정

< 표 6. 지역별 고용 증감률(전년동기비)과 코로나19 이전 고용 회복 여부 >

구분	고용 증감률(전년동기비)				평균	코로나19 이전 고용 회복 여부 (2021.4q 고용 ÷ 2019.4q 고용)
	2021.1q	2021.2q	2021.3q	2021.4q		
전국	-1.4%	2.3%	2.1%	2.4%	1.4%	100.8%
서울	-2.2%	1.2%	0.4%	0.9%	0.1%	99.5%
부산	-2.0%	3.4%	2.4%	0.6%	1.1%	97.9%
대구	1.3%	5.7%	2.6%	1.6%	2.8%	100.6%
인천	-1.4%	0.9%	0.3%	0.9%	0.2%	98.9%
광주	-1.5%	0.8%	0.3%	-1.1%	-0.4%	97.5%
대전	-2.2%	1.8%	1.7%	1.0%	0.6%	101.4%
울산	-2.7%	-0.5%	-0.9%	0.2%	-1.0%	97.1%
세종	4.7%	4.4%	2.2%	1.6%	3.2%	106.9%
경기	-0.9%	3.5%	5.1%	6.3%	3.5%	104.2%
강원	-2.6%	2.2%	3.1%	4.3%	1.8%	101.0%
충북	-1.3%	0.6%	1.0%	3.0%	0.8%	103.3%
충남	-1.1%	2.3%	2.0%	2.3%	1.4%	100.5%
전북	1.9%	3.6%	2.4%	0.8%	2.2%	102.2%
전남	-1.5%	1.8%	1.9%	2.2%	1.1%	100.7%
경북	-2.9%	0.3%	-0.1%	0.4%	-0.6%	98.6%
경남	-2.8%	2.0%	1.2%	0.1%	0.2%	97.8%
제주도	-1.3%	4.6%	0.5%	1.6%	1.3%	100.0%

주: 노란색 음영 지역은 '강한 고용회복세', 빨간색 음영 지역은 '약한 고용회복세'
 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□ **(고용 흐름 특징)** 2021년 4분기 고용 흐름은 청년층 만성적 비취업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나며 청년층 고용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, 최근 경기순환기 상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·준공공 부문에 흡수되어 향후 고용회복 속도가 더더질 전망. 고용회복세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며 지역별 고용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

① **(청년층 고용회복 지체)**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,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(2019년 4분기) 수준은 미회복.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했지만,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'쉬었음', '취업준비'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각각 15.2%, 8.6% 증가

※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 수는 '21년 4분기 392만명으로 **코로나19 이전인 '19년 4분기 398만명의 98.5%에 그침.**

※ 주요 활동상태별 청년층(15~29세) 비경제활동인구 추이(만명, 통계청)
 [전체] 473.4('19.4q)→ 454.2('21.4q) < 4.1% 감소 >
 [쉬었음] 35.5('19.4q)→ 40.9('21.4q) < 15.2% 증가 >
 [취업준비] 50.2('19.4q)→ 54.5('21.4q) < 8.6% 증가 >

② **(공공·준공공 부문에 집중된 고용회복)** 경기순환기(제11순환) 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발생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·준공공 부문에 흡수된 모습. 이로 인해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더질 전망

※ 경기순환기 상 코로나19 위기 전후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감폭(만명)

[도소매] -46.5 [숙박음식] -22.5 [제조] -19.4 **[공공행정] +5.4 [보건복지] +66.0**

▶ 경기정점과 저점일 때의 고용 규모의 차이를 계산해 두 수치[①정점('17.3q)→ 저점('20.2q), ②저점('20.2q)→정점('21.4q)]를 합하여 고용 증감폭 계산

③ **(지역별 고용회복세 차별화)** 최근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, 지역별로는 회복세 강도가 차별화되는 모습.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강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, 울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약한 회복세를 보이며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.

□ **(개선방안)**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성적 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,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별 맞춤형 고용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.

① **(비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)** 빅데이터 기반의 취업 정보 플랫폼 구축, 청년 전담 고용지원 센터 및 전담 서비스 확충으로 비취업 청년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

※ [日, 지역 청년 서비스 스테이션] **기본적 진로상담,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을** 제공하며, 청년들이 헬로워크(공공고용서비스기관)에서의 **구직활동 또는 훈련에**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개발 지원으로 고용상 장애요소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니트(NEET)들과 적극 협력

② **(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하는 노동개혁 추진)**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서 '포스트 코로나 시대'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함.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산업에 맞는 고용정책이나 교육정책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인력양성, 기업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함.

③ **(지역별 맞춤형 고용대책 수립)** 고용회복세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산업 및 고용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 필요 이와 함께 지역별 직업훈련체계 정비,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역 고용 창출 지원을 강화해야 함.

※ 현재 수도권 중심인 **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지방 거점 도시(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울산 등)로 확산**하여 지역 청년들의 오프라인 훈련 기회 확대, 교육 훈련의 지역 격차 해소